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**보도자료**	http://www.mke.go.kr
2013년 3월 12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자료문의 : 기계항공시스템과 최남호 과장(2110-5621), 김진주(2110-4821)	

냉난방공조기기와 금형의 미래를 한자리에

- KINTEX에서 '냉난방공조전', '국제금형 및 관련기기전' 개막-

한국국제냉난방공조전 개최

세계 4대 냉난방공조전, 기술혁신제품 선보여

- 일산 KINTEX서 「2013 한국국제냉난방공조전」 개막 -

- 미·일·독·중국 등 24개국 180여 개사 참여, 수출상담실적 1억불 예상 -

□ 한국냉동공조협회가 주최하는 「2013 한국국제냉난방공조전*」이 지식경제부 김재홍 실장, 중국제냉학회 진 자오후이 사무총장 및 업계관계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

- 동 전시회는 세계 4대* 냉난방공조 전시회로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(KINTEX, 1,2홀)에서 개최되어 친환경·고효율의 혁신제품의 경연장이 될 예정

* 89년 최초 개최 이래 2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냉동공조산업의 축제
* AHR EXPO(미), Chilventa(독), CRH(중), HARFKO(한)

○ 개막식에서는 우리나라 냉난방공조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총 5명이 지식경제부 장관표창을 수상

* 지식경제부장관표창 수상자 (김이경, 유연석, 계광택, 장현종, 김동호)

□ 지경부 김재홍 실장은 축사를 통해,

○ 냉난방공조산업이 지난해 생산 9조원, 수출 54억불 달성하며 세계 4위의 냉동공조 강국으로 도약 한 것을 축하하며

○ 동남아 등 신흥시장 공략에 필요한 고효율·친환경 핵심기술 확보와 대-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필요성을 강조

□ 이번 전시회에는 냉난방공조 산업의 글로벌 리딩 기업인 LG, 삼성 등을 비롯하여 미국, 일본, 독일, 중국 등 23개국, 170여 개 약 4,000여점의 품목을 선보이며

○ 국제냉동기구주관의 국제학술세미나, 신제품발표회, 신기술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될 예정

○ 특히 수출상담회에서 약 100여건, 1억불 이상의 상담이 예정되어 있어 수출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

<주요 전시품목>

- ◆ LG전자 : 스크류냉동기, 룸에어컨, 일체형 에어컨, 전기히트펌프 등
- ◆ 삼성전자 : 룸에어컨, 일체형 에어컨, 전기히트펌프 등
- ◆ 귀뚜라미 : 터보냉동기, 흡수식냉동기 및 냉온수기 등
- ◆ 남동전동기(주) : 고효율 터보 Motor 전시
- ◆ 경인기계 : 레이오넬라균이 없는 항균 냉각탑 전시

*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홈페이지(www.harfko.com) 참조

국제금형 및 관련기기전

생산 10조원 시대, 금형(金型)의 미래를 엿본다

– 일산 KINTEX서 「제21회 국제금형 및 관련기기전」 개막 –
– 미·일·독·중 등 20개국 365개사 참여, 사상 최대 규모 개최 –

□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(이사장 박순황)이 주최하는 「제21회 국제금형 및 관련기기전」에 지식경제부 김재홍 성장동력실장, 박순황 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업계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진행

○ 동 전시회는 '81년 세계 최초의 금형 전문전시회로 시작되어 올해로 21회째를 맞고 있으며,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(KINTEX, 3~4홀)에서 개최

* 주요 국제 금형전 : EUROMOLD(독일), Die & Mold China(중국)

□ 이번 전시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, 일본, 독일, 중국 등 전세계 20개국, 365개 업체들이 금형을 포함한 5개 전문분야별로 1,450개 부스가 설치되어 제품을 전시할 예정

○ 또한, 일본·미국·유럽 등 8개국 120개사의 해외 유망바이어를 직접 초청하여, 전시 출품업체들과 수출상담을 진행, 12억불의 계약과 수출상담이 성사 될 것으로 기대

○ 특히, 금번 전시회에는 플라스틱·냉동공조 등 연관·수요산업전문 전시회가 동시 개최해 7만 여명이 전시회를 찾을 것으로 전망되며, 금형기술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개최

□ '12년 우리나라 금형산업이 생산 10조원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, 이번 행사를 통해 미래 금형 산업의 발전방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,

○ 국내 금형제품의 우수성 및 기술력을 적극 홍보하고, 세계 기술 트렌트를 파악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임

*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홈페이지(www.intermoldkorea.com) 참조

(붙임) 행사관련 자료

1. 「2013 한국국제냉난방공조전」 개요
2. 냉동공조산업 현황
3. 냉동공조 산업발전 유공 포상자 명단
4. 「제21회 국제금형 및 관련기기전」 개요
5. 금형산업 현황

참고 1 「2013 한국국제냉난방공조전」 개요

□ 전시회 개요

○ 전시회 명칭 : 「2013 한국국제냉난방공조전」(HARFKO 2013)
* 영문: Heating, Air-Conditioning, Refrigeration and Fluid Exhibition - KOREA 2011(HARFKO 2011)

○ 행사주기/기간 : 격년제 시행 / '11. 3. 12(화)~15.(금)[4일간](개장: 10:00 ~17:00)

○ 전시장소(면적) : KINTEX 1,2 홀(15,998㎡)

○ 참가규모 : 24개국 181개사 800부스(전시장 규모: 15,998㎡)

○ 전시품목: 냉매압축기, 공기조화기기, 냉동냉장기기, 냉난방공조관련 부품, 냉각탑, 난방기기, 공기기기, 설비기자재, 클린룸 등

○ 주관 : 한국냉동공조협회(KRAIA)

○ 후원 : 지식경제부, 중소기업청, 경기도

○ 부대행사 : 개막식, 유공자포상, 제7회 한국냉동공학학술대회(KCR), 국제 냉동공조 기술 세미나, 신제품 설명회

○ 기대효과: (상담/계약) 총1억불, (관람인원) 총2.1만명(외국인 900명)

□ 행사 특징

○ 국내 최대 규모의 냉난방공조 전문전시회

- 국내 유일의 냉난방공조전문전시회로 미국, 중국, 독일에 이은 세계 4대 냉난방공조관련 전문전시회.

* 1989년 시작 후 올해 12회 개최

○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행사 병행

- IIR한국위원회 냉동공학 학술대회 행사 병행

* 각 분야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및 미래 신기술 정보 교류

○ 출품업체 초청, 실질 유력바이어와의 수출상담회 개최

* 해외바이어 12개국 80명 방한, 전시장 상담, 공장시찰 및 현장상담

참고 2 냉난방공조산업 현황

□ **냉난방공조산업 특징**

○ 생활환경 개선과 **산업 생산 공정에 필수적인 산업**

○ **고효율 및 환경 친화적 신제품 개발**이 필요한 **수출주도형 산업**

□ **국내 산업현황**

○ '12년 생산 8.9조원, 수출 54억불, 수입 15억불, 무역흑자 39억불

○ 냉동공조업체 1,950개사, 종사자 48천명(출처 : '08년 광공업통계, 통계청)

□ **수출입 현황**

○ **03년 이후 10년간 누적 흑자 280억불 달성**

- '12년 수출 54억불, 수입 15억불, 무역수지 약 39억불 기록 전망

<수출입 실적 (백만불)**>**

구분	'03	'04	'05	'06	'07	'08	'09	'10	'11	'12
수출	3,150	3,420	3,603	3,603	3,660	3,841	3,226	3,300	5,067	5,411
수입	690	720	859	1,009	1,283	1,313	821	900	1,018	1,487
수지	**2,460**	**2,700**	**2,744**	**2,594**	**2,377**	**2,528**	**2,405**	**2,400**	**4,049**	**3,924**

○ **해외 생산기지 운영, 기술개발** 등을 통해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성장

□ **세계 속의 위상**

○ '11년, **세계 총생산은 1,678억불**(추정) (일본냉동공조전문지)

- 중동 및 동남아시아 등 시장 수요확대, 세계시장 연 5.0% 성장

구분	1위	2위	3위	4위
생산	중국	일본	미국	**한국**
수출	일본	중국	미국	**한국**

* 차세대 기종인 시스템에어컨 세계 3위 생산(일본, 중국, 한국 순)

참고 3 냉방공조 산업발전 유공 포상자 명단

훈격	소속	직위	성 명	공 적 개 요
지경부 장관 표창	㈜에어윈	대표	김이경	시스템공조 시공 감리, 기술지도, 서비스 처리 및 기술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품질신뢰성 확보 유지에 기여하여 냉난방 공조 신규시장 확대에 큰 역할을 함.
	삼성전자㈜	책임 연구원	유연석	고압 냉동기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보호에 주력하였고 기존 제품의 적합성 개선으로 제품 품질확보에 기여함.
	에스 에이비㈜	대표	계광택	검사기관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에스에이비(주)를 창업, 한국 기후에 적합한 이원냉매 공기열원히트펌프 연구개발을 주도하여 에너지 절감 및 산업발전에 기여함.
	LG전자㈜	기정	장현종	냉동기 제조현장 및 서비스부서에 근무하며 고압가스 위해방지,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였고, 관련 법령 해석과 응용으로 냉동제조현장 애로 해결에 이바지 함.
	㈜미동기연	대표	김동호	냉동공조설비 설비시공, 유지관리, 설계 감리기술 개발로 에너지절약과 고압가스 위해 방지를 이룩하고, 냉매 회수 및 처리 기술 개발로 환경보호에 이바지함.

참고 4 「제21회 국제금형 및 관련기기전」 개요

□ 전시회 개요

○ 전시회 명칭 : 제21회 국제금형 및 관련기기전(INTERMOLD KOREA 2013)

○ 행사주기/기간 : 격년 / '13.3.12(화)~3.16(토), 5일간

○ 참가규모 : 20개국 365개사 1,450부스(전시장 규모 : 26,500㎡)

○ 주최/후원 :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/지식경제부, 중소기업청 등

○ 전시규모 : 금형 및 금형부품, 금형가공용 공작기계, 성형기 등의 금형 관련기기 등이 출품

○ 기대효과 : (상담/계약) 12억불, (관람인원) 7만명(외국인 1,500명)

□ 전시회 특징

○ 국내 최대 규모의 금형 전문전시회

* '81년에 시작, '91년(10회)부터는 격년(홀수년) 개최되어 올해 21회 개최

○ 사상 첫 연관·수요산업전시회와 동시 개최

* 플라스틱전, 냉난방공조전 동시 개최, 전시 시너지 극대화

○ 역대 최대 규모 개최로 세계3대 금형전시회의 위상 강화

○ 수출 Target지역 및 신흥시장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 유망바이어 초청

- 일본, 미국 등 주요 수출 타켓지역과 인도, 말레이시아, 멕시코, 호주 등 신흥국가의 금형수요업체 바이어를 직접 초청(120개사) 및 1,500여명 해외 바이어 내방 전망

○ 인력채용관 운영, 금형산업 지원기관 홍보관, 해외바이어 및 패밀리 투어, 신기술 세미나 개최('12.3.12~16), 경품행사 등 병행

참고 5 금형산업 현황

□ 금형산업 특징

○ 제품의 품질과 디자인을 좌우하는 **중소기업형 기술집약산업**

○ **수출주도형 산업**으로 전 세계 120여개국에 수출

- '12년 수출 25.1억불, 수입 1.5억불, 무역흑자 23.6억불

□ 국내 산업현황

○ 2000년 이후 금형생산 연 12.2%, 수출 연 13.8% 증가

- '12년 생산 10조원 달성, 수출 25.1억불, 금형업체 1,341개사

□ 수출입 현황

○ **'94년 최초로 무역수지 흑자**(17백만불) 시현 후 매년 흑자 달성

- '13년 수출 27억불, 수입 1.6억불, 무역수지 약 25억불 초과기록 전망

<수출입 실적 (백만불)**>**

구분	'94	'97	'03	'05	'07	'09	'10	'11	'12
수출	210	477	740	1,224	1,465	1,452	1,765	2,248	2,512
수입	193	259	83	127	128	140	135	139	152
수지	**17**	**218**	**657**	**1,097**	**1,337**	**1,312**	**1,631**	**2,108**	**2,360**

○ 부품소재 산업중 **'98년부터 매년 對日무역수지 흑자 품목**

- 對日 '12년 4.4억불 흑자 달성(수출 4.7억불, 수입 0.3억불)

□ 세계 속의 위상

○ 전 세계 금형 **총생산량은 1,150억불**로 추정

- 중국 등 시장 수요 확대로 연 9.0% 성장

구분	1위	2위	3위	4위	5위
생산	일본	중국	미국	독일	**한국**
수출	일본	독일	중국	**한국**	미국